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노 주 환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반복적 일상성과 삶의 흔적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임 여 송

반복적 일상성과 삶의 흔적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노 주 환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조 소 과

임 여 송

# 인 준 서

임여송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7년 11월

심사위원장\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심 사 위 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현대사회는 사회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체계화되어왔다. 그리고 산업화가 진행되고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서 사회가 인간에게 가해지는 시스템적인 억압은 더욱 강해졌다. 기술사회, 현대 산업사회, 공업화, 대중사회 등의 다양한 특징을 지니며 발전된 현대사회는 인간의 생활방식, 사고방식, 의식구조를 점점 획일화 시켰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인간들은 합리적이고 조직적인 생활을 위해 자유와 시간을 통제 받게 되었다. 즉, 기계와 조직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인간들의 움직임은 제약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인간 소외, 자기 상실, 무기력 등의 문제점을 야기 시켰다.

본인의 작업은 위와 같은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 무기력함에서 출발한다. 본인 또한 체계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생산적인 일을 위해 그리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위해 사회의 속도에 맞추어 늘 정해진 시간에 집에서부터 일터로 반복한다. 제한된 움직임, 반복되는 노동 그리고 비슷한 일상에서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본인은 이번 작업을 통해 반복되는 일상에서 느껴지는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일상의 출근길에서 변화된 한 장소에 남겨진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무기력했던 일상 속에서 흥미로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일상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왜 삶의 흔적을 다루었는지 그리고 한 장소의 흔적을 어떻게 작품을 통해 드러내고 어떻게 일상의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극복했는지를 연구하였으며 반복되는 일상과 흔적을 설치, 미디어, 키네틱, 형상화 등의 다양한 표현방법을 통해 작업을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2017년 석사청구전에 출품한 작품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본인의 작품 연구 방향과 목적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2장 본문에서는 첫째, 현대사회의 특징과 일상의 의미를 바탕으로 지루함의 원인에 대해 서술하고 본인의 일상에서 발견한 장소의 흔적에 대해 서술하여 작품배경을 나타내었다. 둘째, 반복적인 움직임을 이용하여 일상의 반복성에 대한 시각적 표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고 일상에서 찾은 흔적을 흔적남기기와 재현하기의 방식을 통해 작품 표현방법을 알아보았다. 셋째, 본인의 작품 7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작품설명과 제작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작업방향을 모색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 서 론 .....	1
II . 본 론 .....	3
1. 작품형성배경 .....	3
1)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	3
2) 일상에서 발견된 장소에 남겨진 흔적 .....	5
2. 작품표현방법 .....	8
1) 반복적 움직임을 통한 일상성 표현 .....	8
2) 흔적 남기기 .....	10
3) 재현하기 .....	12
3. 작품 분석 .....	15
III . 결론 .....	33

## 참고문헌

## ABSTRACT

## 작 품 목 차

【작품 1】 흔적의 터	
영상 1분 48초, 소리, 울타리, 가변설치, 2017 .....	15
【작품 2】 흔적의 길	
합판, 석고, 가변설치, 2017 .....	18
【작품 3】 일주일	
원목 첻바퀴, 아크릴, 스티로폼 공, 물감, 모터, 건전지, 각 27.7x27.7x7cm, 2017 .....	20
【작품 4】 스치는 불안	
영상 2분2초, pvc파이프, 천, 가변설치, 2017 .....	23
【작품 5】 다시 올 오늘	
매트지, 각 90x160cm, 가변설치, 2017 .....	26
【작품 6】 지나갈 계절과 남겨질 흔적	
사진 인화지에 프린트. 59.4x84.1cm, 2017 .....	28
【작품 7】 이상한 꿈	
도자, 30x20x20cm, 2017 .....	30

## I. 서론

현대 사회는 산업화 이후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였고 이에 따라 인간의 삶은 편리해졌다. 하지만 발 빠른 현대 산업 사회의 속도에 맞추기 위해 인간들은 더 바빠지고 분주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에 현대사회의 문제점인 비인간화, 인간 상실, 무력감, 불안감, 정체성 혼란 등이 야기되었다.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는 이러한 삶을 비 본래적인 삶이라 말했다. 하이데거는 평균적인 세상 사람은 본래의 자신이 가려진 비 본래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보고, 그런 모습을 퇴락한 상태로 표현한다. 퇴락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은 깊이와 전체성이 결여된 산만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무엇을 위해 하는지도 모르면서 습관적으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직장이나 학교에 가서 동료나 친구들과 습관적으로 인사를 나누고 컴퓨터를 두드리며 일을 하거나 수업을 듣는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가서 저녁을 먹고 TV를 켜 후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잠자리에 든다. 퇴락한 삶, 비 본래적인 삶이란 이렇듯 일상의 정형화된 틀에서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한다.<sup>1)</sup>

본인 또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떠한 ‘사건’ 없이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무기력함 그리고 지루함은 계속되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을 통해 이러한 일상의 감정을 해소할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본인은 지루함의 원인을 반복되는 움직임에서 찾았고 계속 돌아가는 쳇바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인부의 움직임, 반복되는 글씨로 일상성을 표현하였다. 그

---

1) 윤용아, 『존재의 철학자 하이데거 VS 의미의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숨비소리, 2007, pp.83-84

리고 매일 경험하는 일상을 관찰하였다. 일상 안에서 경험하는 작은 사건들을 살펴본다면 매일 겪게 되는 삶이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은 매일 다니는 출근길에서 노부부와 백구가 살던 집이 카페로 변화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전 집의 흔적을 찾게 되었다. 그 흔적은 달라진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흔적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흔적의 장소를 재현하기의 방식으로 표현하였으며 인위적으로 흔적남기기를 통해 단조로운 일상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본인은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과 개인적인 경험에서 발견한 한 장소의 흔적을 통해 느꼈던 감정을 토대로 작품을 진행하였으며 본 논문에서 반복적인 일상과 흔적의 관계 그리고 흔적을 통해 어떻게 지루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을 치유하였는가를 연구하고자 한다.

## Ⅱ. 본 론

### 1. 작품 형성배경

#### 1)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

일상이란 사전적 의미로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이다. 어학적으로 볼 때 ‘일상(Alltag)’이란 개념은 그리스어 ‘카테메란(catemeran)’과 라틴어 ‘코티디아누스(cotidianus)’로부터 유래하는데, 그 뜻은 매일 ‘반복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동시에 이런 반복의 결과 ‘관례된 것’ 또는 ‘습관’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은 한문의 ‘日常(일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日常’이란 늘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하루하루란 뜻이다.<sup>2)</sup>

일상은 인간이 태초에 존재한 순간부터 현재까지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상은 현대인들에게 진부하고 지루한 하루로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루함의 사전적 의미는 똑같은 일을 반복하거나 같은 상태가 지속되어 나타는 싫증나는 감정이다.

농경사회에서도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적인 일,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는 반복적인 일을 해마다 되풀이 되어도 거기에 현대인들이 느끼는 나른하고도 불안한 일상성은 없었다. 따라서 일상성이란 단순한 일상적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로 발달한 현대 산업사회의 도시적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sup>3)</sup>

본인은 현대인들이 일상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원인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자 한

---

2)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p.171

3) 앙리 르페르,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 p.15

다.

첫째, 일상의 의미에서 살펴보았듯이 일상의 반복성 때문이다. 사회학에서는 시간의 논리로써 설명하는데, 즉 발전과 역사가 미래로 향해 펼쳐진 ‘직선적 시간 구조’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면, 일상은 매일 같이 되풀이되는 ‘주기적 시간 구조’에서 그 고유한 특성이 잉태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일상은 되풀이되기 때문에 진부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sup>4)</sup> 둘째,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현대사회의 발전을 이유로 들 수 있다. 현대사회는 산업화를 통해 급성장을 하였고 이에 더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위해 사회는 체계화되고 시스템화 되었으며 기계와 조직의 속도에 맞춰 사람들의 움직임은 제한되고 단순화되었다.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저서 『현대세계의 일상성』의 내용을 가져오자면 그는 현대세계의 일상성을 자본주의의 현대성을 바탕으로 예리하게 비판한다. 그는 현대인을 ‘호모 코티디아누스(Homo Quotidianus, 일상인)’로 명명하고 일상인은 특정 행위만을 반복하도록 프로그램화된 로봇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자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조직화된 관료 사회 안에서 현대인들은 바깥의 힘과 의지에 종속되며, 기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한다.<sup>5)</sup>

또한 인간이 물질적, 정신적 활동을 통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그것들이 인간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 거꾸로 인간이 그것들의 유지를 위해 존재하고 의지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람들은 반복되는 시간의 구조 속에서 현대사회의 발전에 의해 제한되고 단순화된 움직임 때문에 지루함을 느끼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으며 삶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물질에 밀려 정체성 상실과 인간 소외 등을 느끼게 된 것이다.

본인 또한 지루함을 느끼고 무기력함과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했다. 학창시절

---

4) 홍두표, 「지루함의 재발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한국화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p.10

5) 이희진, 「반복적 일상성을 반영하는 실험 타이포그래피 표현연구: 대중교통 노선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디자인 학부, 석사학위논문, 2011, p.35

매일 월, 화, 수, 목, 금 학교에 가서 짜여진 시간표에 맞춰 수업을 듣고 하교를 하고 학원을 갔다. 학원이 끝나면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 숙제를 하고 잠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어제와 비슷한 하루를 살기위해 다시 등교를 했다. 그렇게 일 주일이 반복되었다. 학창시절이 끝나고 어른이 되면 반복되는 일상에서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간표가 생겼고 그 일상은 다시 반복되었다.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생겼고 지켜왔다. 하지만 그림과 동시에 그것을 놓칠까봐 불안해하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이는 단순히 그런 생활에 적응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서 박탈 당할까봐 느껴지는 불안이었고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듯 현대인들은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어떠한 ‘사건’ 들도 이 일상의 바탕 없이 일어날 수 없다. 또한 일상생활처럼 피상적인 것은 없다. 그것은 반복적이고 진부하며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에서 그것보다 더 심오한 것도 없다. 그것은 실존이며, 결코 이론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적나라한 ‘삶’ 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변화되어야 할 대상이지만 바꾸기가 힘든 것이다.”<sup>6)</sup>

## 2) 일상에서 발견된 장소에 남겨진 흔적

일상적 삶은 자연적이고 성찰되지 않는 체험과 사유, 그리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영역이다.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활동 형태는 자연적이고 무의식적인 경향을 갖는다.<sup>7)</sup> 그리고 무의식적인 활동은 일상 속에서 계속 흔적을 남긴다. 흔적은 일상의 경험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흔적이란 사전적 의미로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 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

---

6)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 외, 박재환, 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 옮김,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2, pp. 24-25

7) 최중욱. 앞의 책, p.209

이나 자취”<sup>8)</sup> 이다. 흔적이 남겨져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 곳에 존재했다는 것이고 하지만 동시에 그 존재는 지금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흔적은 타자의 초월성이 드러나는 방법을 가리키며 타자가 자신의 타자성을 잃지 않고 존재의 타자처럼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흔적을 통해서이다. 흔적은 현존의 방식을 통해 주어지지만 순수한 현존, 즉 존재자처럼 드러나는 현존을 가리키지 않는다. 흔적은 오히려 사라짐을 통해 주어지는 현존, 즉 부재의 현존이다. 그런 점에서 흔적은 스스로 취소되는 현존, 자신의 현존을 부인하는 현존이다.”<sup>9)</sup>

흔적의 속성을 엠마누엘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의 견해로 설명하자면 흔적은 현상학이 될 수 없다. 흔적은 비현상이자, ‘나타나게 하지 않음’ 을 뜻하며, 그래서 현상학의 순수한 주제가 아니다. 또한 그는 지향적 의식에 주어지지 않는 타자의 초월성을 강조한다. 사실 흔적은 중세 논리학에서 다루어진 것처럼 기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 흔적은 과거의 의미로 다가설 때 역사가 의지하는 역사적 기호처럼 이루어질 수 있다.<sup>10)</sup> 흔적은 늘 과거로부터 오며 지나가고 남겨진 자국이 고 남겨지는 순간 현재 속에 과거의 기호로 규정된다. 그러므로 흔적은 역사적 기호의 역할로 과거의 행위와 사건의 단서가 된다. 하지만 흔적은 비지향적 의식 속에서도 나타나므로 의도와 부합하는 기호와 는 다르다.

“흔적은 의식 속에서 파악된 사건들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의도에 부합하는 사건들과 완전히 무관하지는 않다. 왜냐 하면 실제로 발생한 사건들을 야기한 지향적 행위 없이는 흔적도 생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흔적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실과 동시에 발생하는 사태이지만 현재의 사태처럼, 현존의 사태처럼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에도 과거에도 속하지 않는 자신의 고유한 시간성을 가진다.”<sup>11)</sup>

8) 네이버, 어학사전, ‘흔적’,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3822600>)

9) 박평중, 『흔적의 미학』, 미술문화, 2006, p.222

10) 앞의 책, p.232

11) 앞의 책, p.233

본인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에서 찾은 흔적이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그 흔적이 보여준 부재의 현존과 그 흔적이 새로 지니게 된 고유한 시간성 때문이었다.

그 흔적은 본인이 매일 다니는 길 중간에 있는 어느 노부부와 백구 집의 흔적이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그 길을 다녔을 때부터 노부부는 아침마다 집 마당에 나와 계셨다. 할머니는 빨간 플라스틱의자에 앉아 계셨고 할아버지는 마당에서 화초와 밭을 가꾸고 계셨다. 그리고 백구 한 마리도 할머니 곁에 앉아 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근처 대학교와 대학원을 다니면서 본인의 일상은 또 그 길에서 시작되었고 본인의 일상처럼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노부부와 백구의 집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백구가 보이질 않았다. 그 집은 남아있고 본인의 일상에서 그 집은 사라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은 새로운 카페로 변해가기 시작했다. 늘 밖에서만 지켜보았던 그 장소를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었다. 허름하던 집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단정해졌다. 노부부와 백구가 언제 있었냐는 듯이 젊은이들이 넘쳐나는 카페가 되었다. 본인은 노부부와 백구의 행방이 궁금해 찾으러 다녔지만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카페 주인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었고 새로운 환경에서 자연스럽고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음에 놀랐다.

본인은 흔적이 보여준 존재성과 고유한 시간성의 미뿐만 아니라 흔적을 통해 볼 수 있는 그들의 세월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곳에 존재했음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 기뻐다. 또한 지루하고 무기력했던 등갓길과 출근길에서 무의식적으로 남기고 있을 본인의 흔적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흔적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들어내는 작업을 통해 바쁜 일상에서 흔들렸던 본인의 정체성을 극복할 수 있었다.

## 2. 작품표현 방법

### 1) 반복적 움직임을 통한 일상성 표현

반복이란 같은 일, 소리, 형태 등이 되풀이 된다는 의미이다. 본인의 작업은 언어, 행위의 반복과 나열을 사용하여 일상성을 표현하였다.

모노크롬 작가 혹은 단색화 작가라 불리는 최병소 작가<sup>12)</sup>는 반복적 행위를 통해 작업을 한다. 최병소 작가는 신문, 잡지, 종이 등에 연필이나 볼펜으로 계속 인쇄된 글씨나 사진 등을 지우는 행위를 반복하여 모든 표면을 뒤덮는다. 수천, 수만 번의 선긋기로 지워진 종이는 새까맣게 선으로 가득 채워진다. 그는 1970년대 부조리한 사회와 억압된 자유에 저항하는 예술적 행위로 읽고 싶지 않은 뉴스로 가득한 신문을 오롯이 선긋기라는 작가의 신체적 행위로만, 일상과 일상을 이루는 사회를 지우고 또 지우고 채우고, 또 채운다.<sup>13)</sup> 그는 똑같은 선을 반복하여 그리지만 결국 그 선은 검은 물질이 되어 나타난다. 만족스럽지 못한 사회의 일상을 지우고 검은 선으로 채우는 최병소 작가와 달리 본인은 반복적 일상을 '오늘'이라는 글자를 반복하여 새겨서 기록하는 작업을 하였다.

【작품 5】〈다시 올 오늘〉에서 ‘오늘’의 언어를 반복하여 일상성을 표현하였는데, ‘오늘’이라는 단어를 종이에 반복하여 새겼고 그림자를 이용하여 또 다른 수많은 오늘을 표현하였다. ‘오늘’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날을 의미하며 금일과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어제 말했던 ‘오늘’과 현재 오늘의 ‘오늘’은 다르다. 일상의 반복은 똑같은 시간의 반복이 아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생겨나는 또 다른 반복이기 때문이다. 본인은 반복되는 오늘을 새김으로써 우리에게는 수많은 오늘이 지나갔으며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그 오늘이 똑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12) 최병소 작가(1943년생)는 대구 출신 회화 작가로 중앙대학교와 계명 대학원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였고 1979년 상파울로 비엔날레를 비롯하여 다수의 해외 전시에 참가했으며 작품은 주로 단색조 화면을 가지며 1970년대 한국미술계의 모노크롬 회화의 핵심적 경향을 대변한다.

13) 류정화, 〈그림산책\_최병소 '무제'.. 지우고 지우고, 채우고 채웠다〉, 파이낸셜 뉴스, 2016.11.14

본인의 반복적 표현방법과 배치 방법은 미니멀아트의 단순한 형태를 반복하는 반복적 규칙과 유사하다. 미니멀 아트는 형태가 지극히 단순하고 과거 작가의 철학적 의미와 관념적 내용 등을 배제한 축소된 형태를 특징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14)</sup>

미니멀 아트를 대표하는 작가로는 도널드 저드가 있다. 그는 주로 기하학적이고 단순한 형태의 사물을 배열한다. 저드의 <무제>(1967)는 미니멀리즘의 전형이자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다. 그는 도금되거나 채색된 강철 소재나 알루미늄, 도금된 아연, 또는 비행기 창문에 사용되는 소재인 플렉시글라스 등을 이용해 육면체를 만들고 반복과 연속이라는 규칙을 이용한다. 이는 전체를 조화롭게 보이기 위한 구성적 발상이 아니라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 알 수 없는 무작위적인 행위의 결과로 과거 작가의 이성적, 논리적, 주관적 구성 체계를 배제한 작품 구성법이다. <sup>15)</sup>

【작품 3】 <일주일>에서 반복되는 쳃바퀴의 움직임을 통해 일상성을 나타냈으며 7개의 쳃바퀴를 반복적으로 나열하여 작동시켰다. 그리고 본인은 7개의 쳃바퀴의 속도를 다르게 조절하였다. 하루하루가 쳃바퀴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일상 안에서 우리가 겪는 사소한 경험들을 통해 느끼는 심리적 시간의 속도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속도로 달리는 쳃바퀴 안의 공은 각자의 일정한 리듬을 만들게 되었고 지루한 일상성을 반복하여 돌아가는 쳃바퀴와 그 안에서 리듬을 만들며 돌아가는 공을 통해 본인은 일상의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해소할 수 있었다.

“리듬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돌아오는 어떤 규칙이다. 리듬을 통해 ‘카오스’는 ‘코스모스’로 변환된다. 이런 점에서 삶의 리듬은 사회에 고유한 시간적 질서와 결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은 단조로운 반복으로 환원되지 않고 나름의 변이를 포함하는 질서다. 즉, 우리는 반복되는 시간의 질서에서 살지만 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결국 삶의 리듬으로서 시간은 개개인들의 삶이 가

14) 진희연,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믿음사, 2008, p.135

15) 앞의 책, 2008, p.160

지고 있는 차이와 이질성을 제거하지 않으면서도, 그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질서 혹은 통일성이며 일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차이와 이질성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통일성과 일관성이 존재하는 것이 삶이고 일상이다. 【작품 4】〈스치는 불안〉에서도 인부들의 움직임은 각자 차이가 있으면서도 같은 옷차림과 봉을 위로 올리는 행위에서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이 작업은 사회의 조직의 속도에 맞춰 계속 반복되는 노동을 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비춰 볼 수 있다. 그리고 중력을 거슬러 계속해서 봉을 올리는 그들의 행위와 제목을 통해 일상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을 표현하고 싶었다.

본인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때로 불안을 느낀다. 반복되는 일상과 획일화된 사회구조에서 ‘나’ 라는 존재의 주체성을 찾지 못해 불안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을 때 불안감이 해소가 될까 의문이 든다.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Erich Fromm)의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인간은 자유라는 타고난 선물을 되도록 빨리 넘겨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고 싶은 욕구보다 더 긴급한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의 서술을 인용하며 개인은 자신의 개체적 자아로 존재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자신의 자아를 붙들어 댈 수 있는 사람이나 사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말한다.<sup>17)</sup> 즉, 일상성이 무너져도 우리는 겁을 내고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고 이러한 스치는 불안은 우리가 존재하는 한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 2) 흔적 남기기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흔적을 남긴다. 본인의 일상에서 찾은 노부부와 백구의 흔적처럼 본인 또한 일상에서 수많은 흔적을 남기고

---

16)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2, p.30-31

17) 에리히 프롬, 김석희 옮김, 『자유로 부터의 도피』, 휴머니스트, 2013, pp.160-161

있다. 본인은 흔적남기기를 통해 반복되는 일상에서 느꼈던 지루함을 극복하고 흔적의 현존을 통해 본인의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흔적의 의미를 살펴보면, 흔적은 전통 형이상학에서 마치 자연의 인과율을 따라 생성된 자연 기호처럼 간주되었다. 하지만 엠마누엘 레비나스와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에 이르러 큰 변화를 맞는다. 두 철학자가 흔적을 이해하는데 차이가 있음에도 그 개념은 존재론에 맞선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sup>18)</sup> 흔적은 존재했던 자국이나 자취이다. 즉, 흔적을 통해 타자는 자신의 타자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리고 흔적은 현존의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사라짐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남긴 흔적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흔적 남기기는 획일화된 사회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며 느끼는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고 존재함을 드러내기에 적절한 방법이었다.

흔적은 존재성뿐만 아니라 시간성도 가지고 있다. 흔적은 흔적이 남겨진 순간부터 과거도 현재도 아닌 고유한 시간을 쌓아간다. 여기서의 시간은 흔적의 역사성을 말한다. 화가 김구림은 그의 저서 《나의 메모 중에서》에서 “그린다의 의미는 자각에 의한 행위의 흔적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나타난 흔적은 그 순간부터 소멸의 가능성을 동반하고, 소멸은 시간의 의미성을 부여받고 새로움을 낳게 하는 동기이다.”<sup>19)</sup> 라고 말한다.

영국의 대지 미술가 리처드 롱(Richard Long)은 반복적 걷기를 통해 남겨지는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남긴다. 하지만 그는 흔적이 아닌 걷기를 통해 자연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자 한다. 롱이 작업 방식으로 택한 걷기는 시간의 경과와 장소의 이동이라는 비가시적인 속성을 지닌 것이다. 이에 그는 도보에 걸린 시간을 채서 이를 문자로 기록하거나 돌을 나열하여 거리를 표시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 걷기의 과정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롱은 여러

---

18) 박정흠, 「현대조각에 있어서 흔적과 서사의 Fractal 조형연구: 연구자의 작품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전공, 석사학위논문, 2008, p.17

19) 김구림, 《나의 메모 중에서》,공간지, 1980. 9월호, p.50.

번에 걸쳐 반복적인 걷기를 수행하여 대지에 흔적을 남김으로써 그 과정을 시각화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롱은 걷는 행위 자체에 미학적 의의를 부여하고자 했던 것이다.<sup>20)</sup> 하지만 본인은 리차드 롱과 달리 걷기가 아닌 걸음으로써 남겨지는 흔적에 집중하였다.

흔적 남기기는 【작품 2】〈흔적의 길〉과 【작품 3】〈일주일〉에 나타난다. 〈흔적의 길〉은 본인이 매일 다니는 길을 생각하며 만든 작품으로 발자국의 흔적을 일부러 남겨 보여줌으로써 흔적과 행위를 강조하였다. 또한 만들어진 흔적의 작품을 관객이 직접 밟을 수 있게 함으로써 다시 새로운 흔적이 쌓이도록 하였고 그 흔적은 다시 새로운 시간을 부여받게 되어 본인의 출근길은 늘 새로운 길이였음을 인지하고 싶었다. 〈일주일〉은 반복해 돌아가는 쳇바퀴 안에서 열심히 굴러가는 검은 공에 색을 묻혀 쳇바퀴에 색을 남기게 하였다. 속도가 다른 쳇바퀴에서 다양한 색을 묻힌 검은 공이 남기는 흔적은 각자 달랐고 전시 일주일동안 각각의 쳇바퀴는 매번 새로운 색의 흔적을 통해 흔적의 시간을 쌓았다.

### 3) 재현하기

“예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경험세계로 되돌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다. 경험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일상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사물들에 대한 경험으로 되돌아가서, 그러한 경험이 갖는 미적 특성들을 찾아내는 것이다. 오직 미적인 것이 일상경험과는 분리될 때에만 그리고 예술작품이 박물관과 같이 일상적 삶으로부터 격리된 장소에 유폐되어 있을 때에만, 위대한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며 예술이론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가능하고 타당한 것이 될 수 있다. 아무리 세련되지 못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로 ‘하나의 경험’ 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분리된 위대한 예술 작품보다도 미적 경험의 본질적 성격을 이해할 수 있

---

20) 박민혜, 「리차드 롱(Richard Long)의 작업에 나타난 자연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p.37

는 단서들을 훨씬 더 풍부하게 가진다.”<sup>21)</sup>

본인은 반복되는 일상의 출근길에 늘 있던 노부부와 백구가 사라지고 그들의 집이 변하는 모습을 경험했다. 성함도, 나이도 모르지만 그들의 부재는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에서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본인은 그들이 존재했음을 증명하고 싶었다.

현대미술작가 크리스티앙 볼탕스키(Christian Boltanski)는 부재를 통해 존재를 증명하는 작업을 한다. 그는 5년간 심장소리를 수집하여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했는데 수집된 심장 소리는 일본 데시마 섬에 보관된다. 그리고 세상에 없는 이들의 심장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은 이 섬을 찾게 된다. 그 심장 소리는 단지 부재를 기억하는 흔적일 뿐이지만 그가 존재했음을 증명해주며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잠시나마 존재감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볼탕스키는 2010년 <모뉘망타 2010\_페르손>에서 옷 무더기로 전시를 한다. 이 작업은 사람의 흔적으로 생을 기억하는 작업이며 포크레인으로 옷을 마구 옮김으로서 우리의 생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불안과 기대에 놓여있다는 인간사를 표현한 작업을 한다.<sup>22)</sup> 본인 또한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으로 그들의 부재와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나아가 반복되고 무의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인간사를 흔적을 통해 고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작품 1】 <흔적의 터>는 재현하기 방식으로 그 흔적이 주었던 정서적 인상을 표현하고 노부부와 백구가 존재했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재현이란 다시 나타냄의 뜻으로 사람이나 장소 등의 상황을 다시 묘사하는 것이다. 재현은 사실을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특정한 공간에서 느낀 감정을 보여주고 그 현실의 의미를 찾아가기 위한 도약이다. 재현이라는 말에는 현상에 대한 부정, 그리고 현상 뒤의 어떤 실체나 본질에 대한 믿음이 내포되어 있다.<sup>23)</sup> 즉, 재현은 경험한 무언

---

21) 존듀이, 박철홍 옮김, 『경험으로서 예술1』, 나남, 2016, p.33

22) 회경, 『여기, 아티스트가 있다』, 아트북스, 2014 pp.64-70

23) 채운, 『재현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p.29

가의 장소 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 공간에서 느낀 감정과 함께 그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함께 표현하는 것이다.

〈흔적의 터〉는 그 집에서 발견한 흔적 중 작게 남아있는 일부의 텃밭을 재구성하였다. 그들의 흔적을 재현하기 위해 그 장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초록색 울타리를 설치하였고 꽃을 심었다. 꽃은 노부부와 백구가 남기고 간 흔적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곳을 지날 때마다 가장 먼저 볼 수 있어서 꽃이 피고 짐에 따라 시간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꽃은 세 묶음으로 나누어 울타리 안에 각각 심었다. 세 묶음으로 나누어 심어진 꽃들은 그들의 흔적을 재현하기 위한 요소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백구의 존재를 대신하는 요소로 보이기도 한다.

본인은 그들이 남기고 간 삶의 흔적을 통해 그들이 평범한 일상에서 쌓아온 시간을 볼 수 있었고 본인이 느꼈던 지루하고 새롭지 않았던 일상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의 흔적에서 느꼈던 정서적 인상은 포근했고 고요했으며 귀중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남기고 간 흔적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터이든, 집이든, 마음 한 구석이든 일상 속에서 늘 새로운 시간을 쌓아가며 변하고 있을 흔적의 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 3. 작품 분석



설치사진



영상 스틸컷

【작품 1】 흔적의 터

## 【작품 1】 흔적의 터

연도: 2017

크기: 1분48초, 가변크기

재료: 영상, 소리, 울타리, 흙, 꽃

### 제작방법

1.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출퇴근길 사람들의 소리를 녹음하고 편집한다.
2. 노부부와 백구집의 변화 과정이 담긴 사진을 수집한다.
3. 물주는 영상을 촬영한다.
4. 어두운 화면에 출퇴근길 사람들의 소리를 넣고 다음 장면으로 변화되는 집의 사진을 오버랩하여 편집하고 마지막 장면으로 물주는 영상을 순서로 영상을 편집한다.
4. 초록색 울타리를 제작한다.
5. 흙, 울타리, 꽃을 장소에 맞게 설치하여 영상과 함께 전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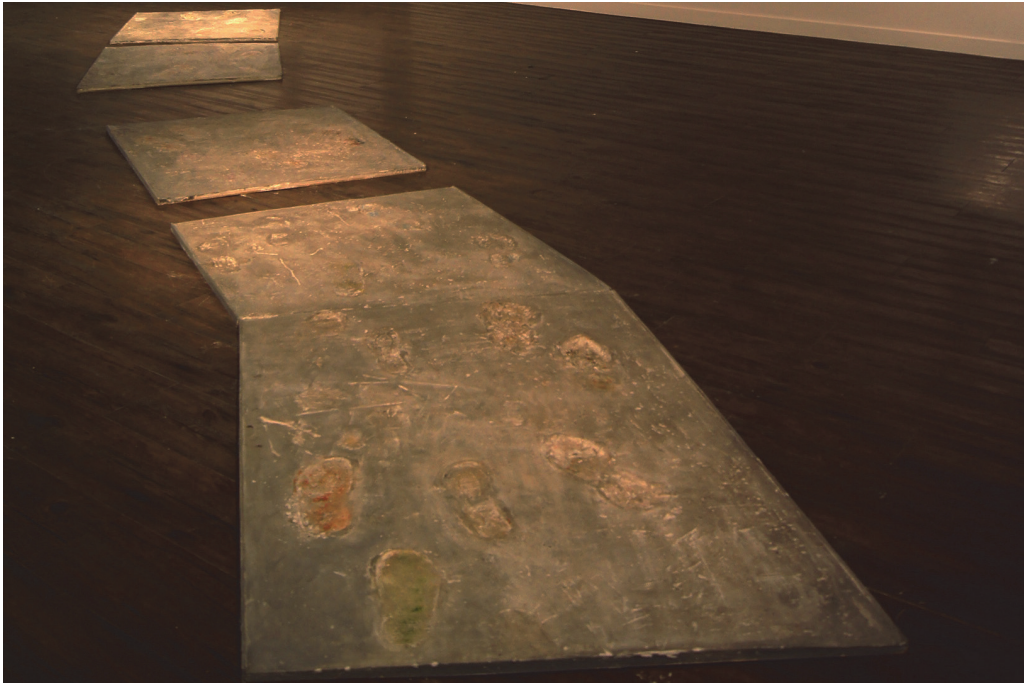
### 작품설명

노부부와 백구의 집에서 흔적을 찾았을 때 느꼈던 감정을 재연과 설치 방식으로 표현했다. 카페가 되기 전에 기억에 가장 남았던, 그들의 집 마당과 인도를 구분 짓던 초록색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들은 없지만 작게 남아있는 작은 텃밭과 여전히 피고 있는 꽃을 함께 설치하여 재현하였다.

영상에는 바쁜 일상의 출근길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화면에는 서서히 그 집이 변해가는 모습이 보여 진다. 바쁜 출근길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그 집의 모습도

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이 만들어놓은 작은 텃밭에 물을 주는 모습이 나오고 영상은 끝난다.

본 작품은 그 장소의 흔적에서 느낀 정서와 감정을 표현했으며 동시에 복잡한 사회 속에서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을 사는 현대인들에게도 각자의 흔적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랐다. 또한 ‘물을 주는’ 행위는 새로운 흔적과 시간을 쌓아 간다는 의미로 작동되었으며 관객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작품 2】 흔적의 길

## 【작품 2】 흔적의 길

연도: 2017

크기: 가변크기

재료: 합판, 석고

### 제작방법

1. 합판으로 석고를 부을 수 있는 틀을 제작한다.
2. 제작된 틀에 석고로 초벌을 한다.
3. 석고 재벌을 하고 굳기 전에 발자국을 남긴다.

### 작품설명

본인은 8년간 늘 같은 길을 다니면서 반복되는 일상에 지루함과 무기력함을 느꼈고 이를 해소할 방법을 찾기로 했다. 그리고 무의식중에 남겨질 흔적에 대해 집중하였다. 매일 매일 다니는 길에 새로운 흔적이 남겨진다면 그 길은 늘 새로운 길임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작업은 유년시절을 보냈던 동네에 놀러갔을 때 어릴 때 뛰어놀던 골목에서 발자국의 흔적을 보고 표현방법을 안출하였다. 마치 그 흔적은 방금이라도 밟고 지나간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그래서 흔적을 통해 존재성을 드러내는 시도를 해보았고 길을 재현하여 발자국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타자로서 본인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인위적으로 흔적 남기기를 통해 흔적과 행위를 강조하였고 만들어진 흔적의 작품을 관객이 직접 밟을 수 있게 하여 새로운 시간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작품 3】 일주일

### 【작품 3】 일주일

연도: 2017

크기: 각 27.7x27.7x7cm

재료: 모터, 건전지, 원목, 아크릴, 스티로폼 공, 물감

#### 제작방법

1. 속도를 다르게 조절한 모터 7개를 준비한다.
2. 사이즈가 같은 나무 쳃바퀴 7개를 준비한다.
3. 쳃바퀴 내경사이즈에 맞게 아크릴을 제작한 후 쳃바퀴에 부착한다.
4. 쳃바퀴 가운데에 구멍을 뚫어 모터와 연결한다.
5. 모터가 달린 쳃바퀴와 건전지를 함께 벽에 걸 수 있는 지지대 7개를 ㄷ자 형태로 제작한다.
6. 벽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모터가 달린 쳃바퀴를 볼트와 너트로 지지대에 조립하여 설치한다.
7. 물감을 묻힌 스티로폼 공을 준비하여 쳃바퀴에 넣고 건전지를 끼우고 모터를 전력선과 연결하여 쳃바퀴를 작동시킨다.

#### 작품설명

본인은 학생과 사회인의 신분으로 일주일 내내 학교를 가야만 했다. 집에서 학교, 학교에서 집이라는 늘 똑같은 패턴의 삶은 무기력하고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이 감정을 해소하고자 작업을 시작했다. 우선 본 작업은 흔히 말하는 '다람쥐 쳃바퀴 돌아가는 삶'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쳃바퀴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라 생각

하였고 그 안에서 열심히 제자리에서 달리는 공을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달리는 인간의 모습으로 비유하였다. 그리고 7개의 쳃바퀴를 돌려 일주일을 표현했고 본인이 느끼는 일상의 속도를 다양하게 조절하여 공이 각자 다른 속도로 달리게끔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공이 각자 다른 속도의 쳃바퀴에서 저마다의 리듬감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반복되는 움직임 속에서 공의 궤적이 궁금하여 검은 공에 물감을 묻혔고 그 물감의 색은 쳃바퀴에 다양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본인은 본 작업을 통해 주기적인 일상의 지루함을 해소하고 흥미로운 리듬감과 다양한 흔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하루하루의 변화를 찾고자하였다. 또한 본 작업을 통해 관객들은 자신이 보내고 있는 일주일을 반복되는 쳃바퀴의 움직임과 공의 흔적을 통해 바라보고 재해석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길 바랐다.



설치사진



영상 스틸컷

【작품 4】 스치는 불안

## 【작품 4】 스치는 불안

연도: 2017

크기: 2분 2초, 가변크기

재료: 영상, pvc파이프, 천

### 제작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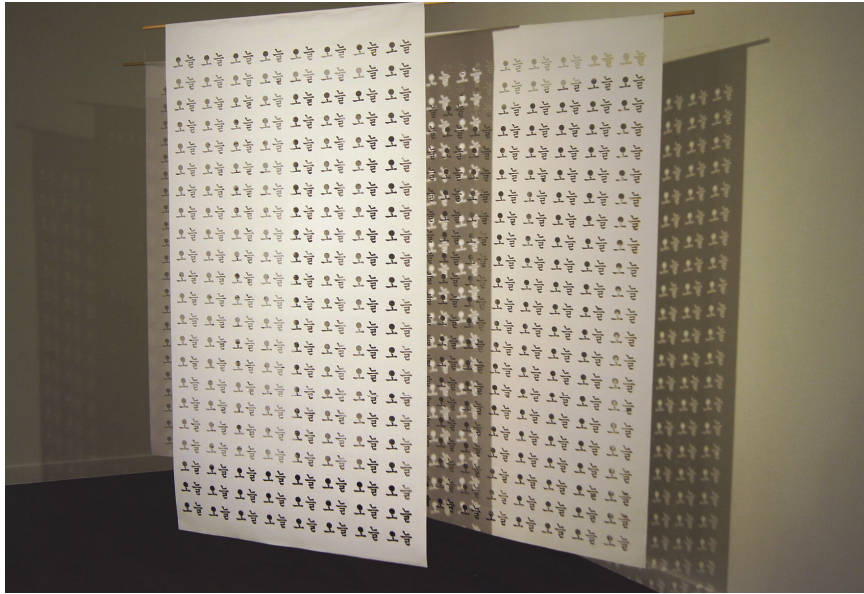
1.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의 모습을 촬영한다.
2. 막대기를 올리는 인부들의 움직임에 긴장감과 불안이 느껴지도록 속도를 조절하여 영상 편집을 한다.
3. pvc파이프와 천을 준비한다.
4. pvc파이프를 조립하고 천을 조립된 파이프에 걸쳐 설치한다.
5. 영상을 천의 크기에 맞게 조절하여 상영한다.

### 작품설명

본 영상 작업은 본인의 일상에서 우연히 발견한 인부들의 움직임을 촬영한 영상이다. 반복해서 막대기를 올리는 인부들의 움직임에 주목하였다. 그들은 막대기를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각자의 리듬에 맞춰 올린다.

처음 이 장면을 접했을 때 같은 옷을 입고 반복적으로 막대기를 올리는 인부들은 마치 개성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된 일을 하는 현대인의 모습과 닮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일정하지 않고 막대기를 손쉽게 올리기 위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서 만드는 리듬감이 흥미로웠다. 그리고 중력을 거슬러 그들의 손에 의해 올라가는 막대기와 어떠한 안전장치 없이 서있는 인부들의 모습에서

불안을 느꼈다. 하지만 그 불안은 낮설지 않았다. 인부들이 서있는 건물의 구조물을 사회의 틀로 보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반복하여 막대기를 올리는 인부들의 모습을 통해 반복적이면서 불안을 내포하고 있는 현대인의 일상을 표현하고 싶었다.



【작품 5】 다시 올 오늘

## 【작품 5】 다시 올 오늘

연도: 2017

크기: 각 90x160cm

재료: 매트지

### 제작방법

1. 매트지에 '오늘' 단어를 프린트한다.
2. '오늘' 단어를 칼로 오린다.
3. 공간에 맞게 설치한다.

### 작품설명

'오늘'의 단어를 새기는 작업으로 일상성을 표현했다. 우리는 오늘을 기준으로 어제를 말하고 내일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시간, 그 순간의 날을 오늘이라 부른다. 우리는 어제의 시간에 살 수 없고 내일의 시간에도 살 수 없으며 늘 오늘의 시간에서 살아간다. 오늘은 계속 우리를 따라다니며 반복한다. 그 오늘이 우리의 일상이다. 본인은 반복되고 지루한 일상이 똑같이 새겨진 글자와 같이 늘 똑같은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본 작품을 통해 관객이 '오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작품 6】 지나갈 계절과 남겨질 흔적

## 【작품 6】 지나갈 계절과 남겨질 흔적

연도: 2017

크기: 59.4x84.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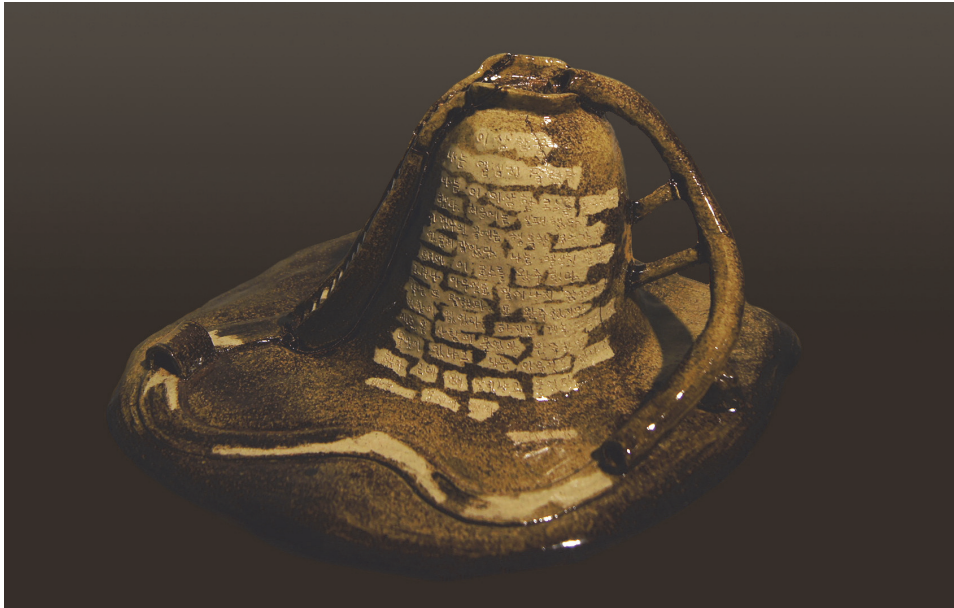
재료: 사진 인화지에 프린트

### 제작방법

1. 관찰하는 장소의 4계절의 사진을 모은다.
2. 4개의 사진을 위치에 맞게 겹치게 하여 투명도를 조절해 4계절의 모습이 담기도록 한다.
3. 인화지에 프린트를 한다.

### 작품설명

본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원을 다닐 때까지 늘 다니던 길에 있는 어느 집이다. 8년의 시간동안 늘 일상에 변함없이 자리했던 집이다. 그 집이 다른 집들보다 특별했던 이유는 상가와 빌라로 변해가는 집들과 달리 도로에 있는 낡은 한옥집이었고 그 집의 주인인 노부부와 백구가 늘 본인의 출근길 시간에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집은 카페로 변했다. 본인은 변한 그 집에서 그들이 남기고 간 감나무, 돌 그릇, 작은 텃밭 등을 발견했고 그 흔적들이 간직하고 있을 시간을 생각하게 되었다. 카페로 변한 후 관찰한 지 1년 동안의 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였고 노부부와 백구의 흔적과 함께 새로운 흔적을 쌓고 있을 그 장소의 시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다.



【작품 7】 이상한 꿈

## 【작품 7】 이상한 꿈

연도: 2017

크기: 30x20x20cm

재료: 도자

### 제작방법

1. 도자 흙으로 형태를 잡고 묘사한 후 글씨를 판다.
2. 모델링을 한 기물을 말리고 가마에 넣어 초벌을 한다.
3. 초벌 후 유약을 전체적으로 바른다.
4. 유약이 마른 후 종이 테이프를 글씨와 길 부분에 붙이고 스프레이로 2차 유약을 한다.
5. 유약이 마른 후 종이 테이프를 떼낸다.
6. 가마에 넣어 재벌을 한다.

### 작품설명

본 작업은 본인이 꾸 꿈의 장소와 꿈의 내용을 함께 적어 형상으로 재현한 작품이다. 꿈에서 본인은 일상처럼 끊임없이 같은 장소와 행동을 반복하였다. 꿈에서 그 장소는 벗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벗어날 수도 없는 삶을 함축하여 만든 작은 굴레 같았다. 본인은 꿈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반복해 달렸던 이유를 찾고자 꿈의 장소를 재현하였고 본인이 다녔던 그 길에 남겨졌을 흔적을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본인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다. 긴 에스컬레이터를 올랐다. 미끄럼틀도 타고 계단도 오르고 이상한 장난감 같은 차도 몰았다. 난 이 이상한 코스를 완주해야 했다. 나와 같은 사람들이 몇 있었다. 그 누구보다 먼저 이 코스를 통과하고 싶었다. 오르면 무언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 같았다. 좋은 일, 편하고, 편안한 일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다. 나는 열심히 했다. 전보다 실력이 늘었다. 그리고 난 드디어 이 코스를 통과 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난 빨랐고 잘했다. 다시 달렸다. 또 달렸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새로운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나에게 처음이냐고 물었다. 나는 여러 번 통과를 했지만 계속 반복 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를 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아무 일도 안 생긴다고. 그럼 왜 또 달리냐 물었다. 나는 한참 생각을 하다가 잠에서 깬다.

본인은 꿈에서 깬 후 한참을 생각했다. 꿈이었지만 본인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다. 하루가 지나간다고 크게 변하는 일은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건'없이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다시 어제 같았던 똑같은 코스를 가야한다. 본인은 꿈의 장소를 재현하고 꿈의 내용을 관객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싶었다. 그리고 본인은 조심히 생각해보았다. 보이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길에 흔적이 쌓일 것이고 그 흔적은 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 내어 우리의 존재를 증명할 것이다.

### Ⅲ. 결 론

본 연구는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성과 개인적으로 경험한 한 장소의 삶의 흔적에 대해 고찰하였다.

해가 뜨고 지는 근본적인 시간의 주기성과 현대사회의 발전으로 야기된 획일화된 현대인의 사회활동을 일상의 지루함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찾았으며 반복적 움직임을 통해 일상성을 표현하였다. 또한 본인의 일상 안에서 발견한 특정 장소의 변화와 그 장소에 남겨진 흔적으로부터 부재의 현존과 흔적의 시간성을 경험하였고 반복되는 일상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일부러 흔적을 남기는 표현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였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느꼈던 인상과 감정을 재현의 방식으로 표현하였으며 더 나아가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각자의 흔적의 터를 생각하게 하고 꽃에 ‘물을 주는’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늘 새로운 흔적과 시간을 쌓아 가고 일상의 반복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싶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일상과 바쁘게 회전되는 사회 속에서 사소한 경험을 무심코 지나친다. 학생들은 짜여진 시간표에 따라, 사회인들은 그들의 스케줄에 따라 똑같이 패턴화된 일상을 살아가면서 무기력함을 느끼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한다. 하지만 일상에서 경험하는 작은 사건들과 변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남겨지고 있을 자신의 흔적을 살펴본다면 그들의 일상은 매번 새로운 길 앞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본인의 작품을 통해 말하고 싶었다.

본 연구를 통해 본인의 작품 형성배경과 표현방법 그리고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며 좀 더 본인 자신과 주변에 관심을 기울여 일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관찰하고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각화 시켜 본인의 작품연구를 발전시키도록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

- 박평중, 『흔적의 미학』, 미술문화, 2006
- 소광희, 『하이테크 존재와 시간 강의』, 2003
- 안희경, 『여기, 아티스트가 있다』, 아트북스, 2014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푸른숲, 2002
- 진휘연, 『아방가르드란 무엇인가』, 믿음사, 2008
- 채 운, 『재현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 최종욱, 『일상에서의 철학』, 지와 사랑, 2000
- 앙리 르페르, 박정자 옮김, 『현대세계의 일상성』, 기파랑, 2005
- 에리히 프롬, 김석희 옮김, 『자유로 부터의 도피』, 휴머니스트, 2013
- 존듀이, 박절홍 옮김, 『경험으로서 예술 1』, 나남, 2016
- M. 마페졸리, H. 르페브르 외, 박재환, 일상성, 일상생활연구회 옮김, 『일상생활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2002

### 《 참고 논문 》

- 박정흠, 「현대조각에 있어서 흔적과 서사의 Fractal 조형연구: 연구자의 작품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대학원 조소과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08
- 박민혜, 「리처드 롱(Richard Long)의 작업에 나타난 자연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이희진, 「반복적 일상성을 반영하는 실험 타이포그래피 표현연구: 대중교통 노선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디자인 학부, 석사학위논문, 2011
- 홍두표, 「지루함의 재발견: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한국화학과 한국화전공, 석사학위논문, 2009

# ABSTRACT

## A study of monotonously repetitive daily life and trace of life

– Focusing on the researcher's work –

Lim, Yeo Song  
Department of Sculpture  
Graduate school of Sculpture  
Sungshin Women's University

Modern society has been systematized continuously to smooth the flow of society. And as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and capitalist society became more systematic, the oppression of society deteriorated. technological societies, modern industrial societies, industrialization and mass society, has standardized human life style, mindset and ritual structure. In this systematic social structure, humans are controlled freedom and time. In other words, human movements are constrained to match the speed of machines and organizations. This has caused problems such as human alienation, self-loss, and helplessness.

My work starts from the helplessness of this modern society. I also live in a systemized society. I repeat from home to work place at the appointed time for living a productive and affluent life. It is natural to feel boredom and helplessness in limited movement, repetitive labor and similar routines. So I want to overcome the boredom and helplessness that I feel in my daily life. I discovered a trace in the

changed place on the way to work place. And I found something interesting in my daily life.

In my research paper started from my personal experience, and studied why I dealt with the traces of life, how I exposed the traces of a place to my work, and how I overcome the boredom and lethargy of daily life. Also, I worked through various ways of expression such as installation, media, kinetic, and shaping.

This research paper is based on the works master billed exhibition works in 2017 as follows.

In chapter 1, introduction, I introduce the research purpose and method of my artwork.

In chapter 2, the main points of the paper, First, I describe the background of the work by describing the cause of boredom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modern society and the meanings of everyday life. Secondly, I studied how to express works with repetitive movements of daily life, and I have studied how to express works in the way of leaving traces. Third, I describe work description and production method individually for each of the seven works.

In chapter 3, conclusion, we have summarized the contents of this paper and sought the direction of future work.